

나눔의 삶을 실천한 김만덕

조선시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김만덕. 김만덕은 지독한 흉년을 겪은 제주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 먹을 것을 나눠주었다. 그녀의 나눔 정신은 오늘날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동문로 | 제주시 일도1동 1478-4 ~ 제주시 건입동 598(약 2km)

만덕로 | 제주시 건입동 984-56 ~ 제주시 일도1동 1069-5(약 0.4km)

동문로6길 | 제주시 일도1동 1167-2 ~ 제주시 일도1동 1108-18(약 0.2km)

산지로 | 제주시 건입동 1310-3 ~ 제주시 일도1동 1146-26(약 0.5km)

서부두길 | 제주시 건입동 1319-37 ~ 제주시 건입동 1435-1(약 0.4km)

공덕길 | 제주시 건입동 1226-3 ~ 제주시 건입동 1188(약 0.3km)

침성로길 | 제주시 일도1동 1413-1 ~ 제주시 일도1동 1210-1(약 0.5km)

동문로 | 제주성 동문

동문로는 옛 제주성의 동문터를 지나는 길이다. 조선시대에는 제주로 들어오는 공식 포구가 화북과 조천포였기에 제주에 부임하는 목사들이나 제주에 유배된 사람들은 대부분 동문을 통해 제주성에 들어왔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유배의 길. 이곳에 이르러 그들은 비로소 절망의 길을 실감했을 것이다. 유배인들이 해배되어 돌아가게 될 때도 다시 이 문을 통해 포구로 향했다. 기나긴 유배생활을 마치고 다시 희망을 얻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을까. 하지만 광해군이나 충암 김정처럼 끝내 이 문을 다시 나서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유배인들도 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던 옛 제주성 동문터 인근에는 과거를 뒤로하고 산지천만 조용히 흐르고 있다.

만덕로 / 동문로6길 | 김만덕의 나눔의 삶

만덕로는 조선시대 제주의녀인 김만덕이 운영하던 객주가 있었던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 정조 때 인물인 김만덕은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구휼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녀는 역경을 이겨내고 객주를 운영하면서 물품 교역으로 많은 부를 쌓았다. 당시 제주는 자연재해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이 굶어죽는 상황이었다.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으로 육지에서 쌀을 사다가 제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정조는 김만덕을 궁궐로 불러 ‘의녀반수’라는 벼슬을 내리고, 그녀의 소원이었던 금강산 구경을 시켜주었다고 한다.



김만덕객주터 복원부지

그녀의 선행은 당대 유명한 재상인 채제공의 <만덕전>을 비롯해 이가환, 박제가, 정약용 등의 기록에 전해온다. 훗날 제주에 유배온 추사 김정희는 그녀의 선행을 듣고 후손에게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라는 뜻의 <은광연세>라는 글씨를 써주었다고 한다. 제주에서는 그녀의 선행을 기념하기 위해 김만덕과 같이 나눔을 실천한 인물을 선정하여 매년 만덕봉사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만덕과 같이 나눔을 훌륭히 실천한 인물로 고수선을 들 수 있다. 그녀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고, 의료봉사를 비롯해 문명퇴치, 여성권익신장에 앞장섰다. 특히 수십 년동안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사회 사업에 큰 힘을 쏟았다. **동문로6길**에 있었던 운주당은 제주목사가 제주성의 방어를 지휘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었는데,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수선은 이곳에서 흥익보육원을 운영했다고 한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만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김만덕의 나눔의 삶은 제주 사람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그녀의 정신은 이기적인 삶이 만연한 오늘날 더욱 귀감이 되고 있다.

산지로/서부두길/공덕길 | 산지천



산지천

동문로터리에서 바다쪽으로 이어지는 **산지천**은 산지천 옆을 지나는 도로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천은 한라산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이 곳곳을 거쳐 바다까지 이어진다. 제주의 하천이 대부분 건천이어서 비가 올 때만 물을 볼 수 있는 것에 반해 산지천의 하류에 해당하는 이곳에서는 항상 물이 흐른다. 산지천은 과거 비가 많이 내리거나 태풍이 오면 물이 넘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지천에 조천석을 세워 하늘에 기원하면서 재앙을 막으려고 했다. 산지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인 산지포구 인근에는 부두 서쪽의 방파제로 들어가는 길

인 **서부두길**이 있다. 이 길은 횡집거리로 유명해 제주의 싱싱한 맛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산지천의 동쪽 부근은 제주성에서 전망이 가장 좋았던 곳이라고 한다. 유배인들이 남긴 문집에 보면 남쪽으로는 한라산을 마주하고, 주변에는 굴나무가 가득했으며, 앞에는 산지천이 흐르는 경치가 빼어난 곳이라 했다. 그래서 공신정과 같은 정자를 마련했는데 제주성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정자였다. 목사를 비롯한 관리들이 이곳에서 북두칠성을 보며 운수를 기원하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고, 지위가 높은 유배인이나 시인

들이 자주 찾았던 곳이었다. 공신정이 있었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공덕길**이라는 길 이름에서나마 그 자취를 찾아 볼 수 있다.

산지천은 1960년대에 복개되어 상가건물이 들어서 있다가, 2000년대에 들어 다시 하천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산천단 상류의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이 펼쳐지고, 매년 산지천등축제가 이 일대에서 열려 다양한 테마의 등을 선보이고 있다.

칠성로길 | 칠성단

산지천의 서쪽으로 이어지는 **칠성로길**은 옛 지명인 칠성골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증보 탐라지>에 따르면 옛날 고·양·부 삼을라가 북두칠성을 따라 돌로 7개의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 지역이 옛날 칠성단이 있었던 곳이어서 칠성골로 불렸다고 전한다. 또 다른 유래로는 제주에서 뱀신을 칠성신이라고 부르는데, 일곱 마리의 뱀이 제주성 안에 들어와 과원, 옥, 관청 등에 신으로 좌정했다고 해서 칠성골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칠성로길은 수십 년 전만 해도 문화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문화예술인들이 북적이며 제주의 문화를 이끌어갔던 곳이다. 최근 원도심 살리기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곳에 다시 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